

강진축협 하나로마트 공산품 위법 판매

농수축산물만 팔 수 있는 지역

용도변경 없이 버젓이 영업

농협 이어 축협도 지역상권 위협

지역민·군의회 행정조치 요구

지역 축협이 새롭게 문을 연 하나로마트가 용도 변경 없이 버젓이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행정당국이 법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손을 놓고 있어 반축을 사고 있다.

강진군 등에 따르면 완도축협과 합병한 강진완도축협(조합장 김영래)이 25일 확장 영업을 시작한 하나로마트가 규정과 다른 농수축산물만 판매하게 되어 있지만 별도의 용도변경 승인 없이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는 강진을 평동리 일

대에 신축 이전비로 총 175억원(부지매입비 42억원, 건축비 133억원)을 들여 신축했다. 총 대지 1만3322㎡(4030평)에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은 4793㎡(1450평)이다. 2층은 본점 사무실과 회의장, 식당 등이 들어서 있으며 1층 하나로마트는 1820㎡(55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확인 결과 이 건물은 '생산농지지역(농업진흥구역)'에 자리 잡고 있지만 공산품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별도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생산농지지역이란 정부가 경지 정리된 구역을 지정해 쌀농사 등 전용으로 사용되는 농업진흥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수산물 외에 품목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역의 한 상인은 "지역상권이 어려운데 축협까지 나서 대형상점을 세우고 법규까지 위반하며 장사를 하고 있다"며 "행정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은 또 축협의 이러한 불법 영업을 강진농협 파머스마켓의 전철을 밟는 것으로 특히 시

비가 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진농협은 지난 2003년 생산농지지역에 파머스마켓을 개장한 후 10년이 넘어서야 용도변경 승인을 얻었다. 이처럼 농협, 축협마트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공산품 판매까지 가능한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지목을 변경할 경우 영업력 향상은 물론 땅값 상승효과까지 불러오기 때문에 특히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근 농기계판매대리점 등에서 이와 유사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승인해줄 수 있는지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진군의회 노두섭 의원은 "농림축수산물 판매시설만 건축할 수 있는 생산농지지역에 축협 부지만 용도 변경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반하는 특혜 소지가 있다"며 "농협, 축협 마트가 대형화되면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나주시 '마음 편지'로 코로나에 지친 시민 위로

LED전광시설 활용 미디어 송출

"콘텐츠와 예술의 힘으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나주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는 편지를 미디어로 송출한다.

나주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과 빛가람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 LED전광시설을 활용한 '토닥토닥 마음편지 프로젝트'(사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위, 콘텐츠진흥원의 지역사회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마음편지 프로젝트는 광주·전남 지역작가가 1인이 참여해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권지애(희곡), 김규성(수필), 김영미(그림책), 김용태(소설), 조경희(동화), 조성국(동시), 홍관희(시) 씨 등 작가 7인의 메시지와 더불어 드라마, 영화, 문학작품 속 메시지 문구도 송출된다.

마음 편지는 빛가람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 위치한 스마트 미디어스테이션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밤 9시까지 만날 수 있다. 빛가람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은 투영 전광 유



리 형태의 총 2층 입체 건축물로 지난 2016년 콘진원, LH의 협력 사업으로 설립됐다. 건물 내부의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위한 '나만의 전시회' 개최 공간으로 외벽 LED전광판은 나주시 홍보·미디어아트 영상 시민 참여 UCC상영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으로 반복되는 지친 일상에 조금이나마 희망과 위로를 얻는 프로젝트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나주시민을 위해 소통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문화예술로 활발하게 교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담양군, 가사문학면 무동마을 세계지질공원 지오빌리지 지정

용면 도래수 마을 이어 두번째

담양군이 가사문학면 무동마을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지오빌리지로 지정했다.

지오빌리지(Geo-Village)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안에 있는 지질·생태·문화적 특성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지질관광을 제공하는 마을이며, 2020년 용면 도래수 마을을 지오빌리지 제1호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수령 320년의 느티나무가 자리잡은 무동마을은 무등산 자락의 지질명소로 잘 알려진 신선대 및 억새평전이 가까이 있으며, 비가 내리면 70m 길이의 시루지킴이포가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무동길을 탐방하는 탐방객이 거쳐 가는 코스로 화순군 예비 지오빌리지 이사마을과 연결하는 위치로 지질공원 명소로 손색이 없다.

앞으로 무동마을은 안내관 설치와 주변 환경 정비, 지오토론회 및 지오투레일 행사를 개최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과 지오빌리지 마을을 홍보하고,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지오프너 상품을 개발



지난 22일 가사문학면 무동마을에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지오빌리지로 지정 협약식이 열렸다.

발해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유네스코는 지질학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관광과 교육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곳을 지질공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8년 광주시와 담양군 전 지역, 화순군 일부를 포함한 1051.36km²를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장성군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공시제 부문...사업비 7000만원

장성군이 최근 고용노동부 주관하는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사진), 상사업비 7000만원을 확보했다.

장성군은 청년, 여성, 취약계층,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사람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며 코로나19 위기와 인구 소멸에 대응하여 '위기에 빛나는 촘촘한 장성형 일자리'를 창

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군은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청년 인구 유입과 정주기반 조성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취약계층 지속적 소득 창출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관광형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일자리 시책 추진에 꾸준히 힘써온 결과가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



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 동북농협 광역살포기 활용 벼 공동방제

화순 동북농협이 광역살포기를 활용한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나선다.

화순 동북농협은 25일 백야면 남치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광역살포기를 활용한 벼 병충해 공동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방제는 화순군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광역살포기(사진)를 이용해 공동방제를 실시, 고품질 쌀 생산과 농가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수 화순동북농협 조합장은 "매년 농협에서 실시하는 공동방제에 대한 호응도가 좋아 신청 농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나주빛가람동 '공유 냉장고' 활성화 나선다

지역사회협·나주농업진흥재단 협약

나주빛가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나주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이하 나주농업진흥재단)이 주민들 음식 나눔 창고인 '공유 냉장고' 운영 활성화에 나섰다.

빛가람동은 최근 나주농업진흥재단과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한 우리동네 공유 냉장고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 냉장고는 주민의 자발적 기부로 통해 먹거리를 냉장고에 채워놓고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가져가는 일종의 음식 공유 창고로 운영된다.

먹거리 나눔 문화 확산·자원 절약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발굴해 지난 해 11

월 빛가람동 LH5단지아파트 주민카페에 1호점이 개설·운영 중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유냉장고 활성화에 따른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나주농업진흥재단은 공유 냉장고를 통해 독거 어르신·결식 우려아동 등 취약계층에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먹거리 공유에 따른 자원낭비 방지·탄소중립 실천과 로컬푸드 가치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해가기로 했다.

반재운 나주농업진흥재단 부이사장은 "공유냉장고를 통해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와 자원 절약은 물론, 로컬푸드가 갖는 상생 및 나눔의 공익적 가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